

이슈

2

2019년 9월 17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제3166호

내가 왜 떴게?

싸우는 거 아니라니까요



안선영과 가족들

●**안선영, 현실부부** : 안선영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한 장이 많은 사람을 웃음 짓게 만들었다. 마카오에서 가족 여행 중인 안선영은 ‘#현실부부 #싸운거아님 #기분 나름좋은거임’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가족 사진을 올렸는데 각자 다른 벤치에 앉아 서로를 노려보는 듯한 부부의 모습이 빵 터지게 한다. 마치 싸우는 것 같지만 이것이 현실부부의 대화법. “오늘 점심메뉴 괜찮았지?”, “그럼 내가 고른 건데”를 대입해보니 그럴 듯하네요.

점심이라 소식한 건데요



현주엽

●**현주엽, 점심값 94만원** : 프로농구 장원 LG 세이커스 현주엽 감독이 대식가임을 입증했다.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한 현 감독은 선수 등과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6명이 17인분을 손사한 결과 94만 5000원의 점심값이 나왔다. 현 감독은 “점심이라 많이 먹지 않았다. 30인분 예상했다”고 해 출연진들을 놀라게 하기도. 현 감독님, 언제 날 잡아 ‘먹방의 신’ 벤츠와 합방 한번 하셔야겠어요.

여러분도 등록하세요



백종원 아들 지문 등록

●**백종원·소유진 부부, 미아방지** : 백종원, 소유진 부부가 파출소를 방문해 세 자녀의 지문을 등록했다. 소유진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속에는 첫째 아들 용희가 지문등록을 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들 남매가 지문을 등록한 것은 실종에 대비해 아동 등의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함으로써 유사시 가족을 빨리 찾아주는 제도 때문이다. 여러분도 어린 자녀를 위해 얼른 등록하세요. ‘안전드림 앱’으로 집에서 하셔도 된다고 하네요.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솔하임컵 우승 영웅 수잔 페테르센, 4년전 악몽 지우고 명예롭게 은퇴

미국 꺾은 우승퍼트 그리고 필드와 작별



4년 전, 유럽·미국 여자골프 대항전인 솔하임컵에서 비신사적인 플레이를 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수잔 페테르센이 같은 대회에서 비난을 환호로 바꿨다. 16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에서 끝난 이 대회에서 페테르센은 18번 홀, 침착한 퍼트로 유럽의 우승을 이끌었다. 두 팔을 끌어당기며 크게 함성을 지른 그는 우승 기자회견을 통해 은퇴를 선언했다. 퍼스서(스코틀랜드) | AP뉴시스

4년전 컨시드 논란속 역전패 못매 결혼·출산 후 38세에 출전한 대회 미국과 동점 맞선 마지막 18번 홀 2m 우승 퍼트 성공 후 행복한 포효

수잔 페테르센(38·노르웨이)의 끔찍했던 악몽은 4년이 흐르고서야 치우졌다.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바로 그 대회에서 정반대의 환호를 받으며 프로 인생의 화려한 마침표를 찍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5 솔하임컵(2년마다 열리는 미국팀과 유럽팀의 여자골프 대항전)은 페테르센에게 잊지 못할 악몽으로 남았다. 매치플레이에서 홀아웃을 대신하는 ‘컨시드 논란’이 발단이었다. 대회 마지막 날 포볼 경기 17번 홀, 미국팀 앨리스 리(24·미국)의 버디 퍼트가 홀 40cm 앞에서 멈춰 섰다. 이때 유럽팀 페테르센과 찰리 헐(23·잉글랜드)은 그란을 빠져나갔고, 앨리스 리는 둘로부터 컨시드를 받았다고 생각해 공을 집어

들었다.

여기서부터 논란이 시작됐다. 페테르센이 “컨시드를 준 적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앨리스 리는 규칙대로 파가 아닌 보기로 이 홀을 마쳤다. 후폭풍은 거셌다. 앨리스 리가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페테르센은 비신사적인 플레이를 했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유럽팀은 당시 대회 역전패 이후 2017년 대회에서도 패해 역대전전에서 5승10패로 밀렸다. 영국 스코틀랜드 PGA 센터나리 코스(파72·6434야드)에서 13일(한국시간) 개막한 2019 솔하임컵 역시 전반적인 예상은 미국팀의 우세였다. 그러나 유럽팀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통산 6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주인공은 4년전 ‘역적’ 페테르센이었다.

대회 마지막 날인 16일, 유럽팀과 미국팀이 13.5점 동점으로 맞선 가운데 페테르센과 마리아 알렉스(29·미국)가 마지막 심골 매치플레이를 벌였다. 17번 홀까지 승부를 보지 못한 둘은 18번 홀에서

나란히 2m 거리의 버디 찬스를 맞았다. 먼저 퍼터를 잡은 알렉스의 공은 홀을 빗겨나간 반면, 페테르센의 퍼트는 컵으로 뻗려 들어가면서 유럽팀의 우승이 결정됐다.

끝내기 퍼트 직후 폴짝폴짝 뛰며 기뻐한 38살 베테랑은 우승 기자회견에서 깜짝 은퇴를 선언했다. 2003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로 데뷔해 메이저 2승을 포함해 통산 15승을 올린 페테르센은 “오늘은 프로 선수로서 정말 완벽한 마무리라고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훌륭하게 끝낼 수 없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은퇴를 공식화했다.

2017년 결혼 후 지난해 아이를 낳으며 출전 횟수를 줄인 페테르센은 동료들의 힘찬 응원과 함께 정든 필드를 떠났다. 두 눈시울이 붉어지며 “완전히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결을 지키던 동료들이 목정껏 환호하며 페테르센의 또 다른 장밋빛 인생을 기원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멀티골 손흥민, 판타지리그 27위 주가폭등

EPL사무국 FPL랭킹서 23점 부여 BBC선정 이주의 팀에도 이름 올려

손흥민(토트넘)의 주가가 판타지리그에서도 상승세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사무국은 16일(한국시간) 판타지 프리미어리그(FPL) 랭킹에서 손흥민에게 23점을 매겼다. 전체 27위에 해당하는 높은 순위다.

손흥민은 14일 런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시즌 EPL 5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와 경기에서 멀티 골을 터뜨리며 이번 시즌 1, 2호 골을 신고했다.



손흥민

이에 힘입어 이 경기 최우수선수(MOM)에도 이름을 올렸다. FPL은 팬들이 실제로 뛰는 EPL 선수를 선택해 자신의 팀을 만들고, 성적을 점수화하여 종합 점수로 팀 간의 승패를 겨루는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FPL 랭킹은 EPL 매 라운드에서 선수 개인이 낸 성적을 토대로 점수가 매겨진다. 실제 기록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해당 라운드에 활약한 선수의 성적을 알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선수는 핀란드 출

신의 스트라이커 테무 푸키(노리치 시티)로 49점이다. 그는 8월 치른 4경기에서 5골·1도움을 기록하며 EPL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손흥민은 더불어 영국 공영방송 BBC가 선정한 EPL 이주의 팀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주의 팀은 1980년대 토트넘에서 활약한 공격수 출신이자 BBC에서 축구 분석을 맡고 있는 가스 크로스가 선정했다. 손흥민이 이 명단에서 타미 아브라함(첼시), 사디오 마네(리버풀)와 함께 공격진영에 포함됐다. 크로스는 “손흥민이 EPL에서 아직 헤트트릭을 기록한 적이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치른 모든 대회를 통틀어 가장 골을 많이 넣은 토트넘 선수다. 7경기에서 4골을 만들었다”고 극찬했다.

정지국 기자 stop@donga.com

KBO, 사라진 100만 관중

▶1면에서 이어집니다

장 : 선수들의 단일한 현실인식, 그 탓이 적지 않다고 봐야죠.

정 : 선수들의 인식, 팬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팬들이 등을 돌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서 : ‘야구의 날’ 팬사인회에 내보내는 선수와 관련한 논란이 발생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요.

장 : 저는 조금 슬픈 현실을 지적하고 싶어요. 성적만능주의가 아직도 남아있을까 겁이 납니다. 지금 안 좋아도 내년엔 인기팀 중 한 팀이라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관중이 늘면, 구단과 선수들은 ‘역시 성적이야’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갈 게 자명하거든요.

정 : 연봉을 주는 주체는 구단이지만 원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팬들의 지갑에서 나간다고 봐야죠. 메이저리그(MLB)에서 천문학적 연봉을 받는 스타들이 팬 친화적인 이유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 : 적어도 팬사인회 같은 행사에선 최고의 서비스를 해야죠.

정 : 성적을 내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죠. 팬들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적 좀 나면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한 듯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는 게 문제죠.

강 : 성적만능주의로 간다면 관중수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재미없는 야구와 ‘프로다움’의 문제?**

강 : 올 시즌 초반부터 제기됐던 문제죠. 홈런 급감에 따라 관중도 감소했다는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장 :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봐요. 명품 투수전은 사실 언론에서나 좋아하는 표현이죠. 돈 주고 야구장에 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케네디 스크어(8~7)’ 이상을 바라한다고 봅니다.

정 : 홈런 감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타격왕은 포드를, 홈런왕은 케틸락을 탄다’는 MLB의 격언으로도 잘 드러나죠. MLB가 관중감소의 타개책으로 공인구의 반발력을 높였다는 음모론에서도 홈런의 영향을 엿볼 수 있구요.

강 : 그리고 ‘명품 투수전’이라고 한다면 정말 화려한 구종과 구위로 눈을 즐겁게 하는 투구의 향연이 돼야죠. 그런데 그런 투수전도 홈런이 뺄뻔 터지는 경기에 비해 팬들의 보는 재미를 충족시킬 수는 없더군요.

장 : 솔직히 일반인들의 눈으로는 시속 150km의 패스트볼과 140km의 슬라이더를 분간해내기 어렵습니다. 공격 때 ‘떼창 응원’을 하는 게 우리의 문화인데, 주구장창 앉아서 보기만 하는 투수전을 어느 누가 즐겁게 관람했다고하겠습니까.

강 : 응원 얘기가 나와서 덧붙이자면 팬들의 입에 착착 달라붙던 응원가, 선수의 등장 때마다 분위기를 띄우던 등장곡이 사라지면서 응원의 재미가 반감됐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등장곡이 아예 사라지니 심심해진 부분도 있어요. 선수가 직접 정하는 등장곡은 팬들이 선수의 취향을 파악하는 또 다른 재미죠.

서 : 응원가는 보통 타자들을 위해 불러주는 게 대부분이라 소리 지르고 노는 것도 점수가 나야 가능한 일이죠.

강 : 마지막으로 관중증가를 위한 제언을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정 : 선수들이야 모르겠지만 적어도 프런트는 철저히 그라운드가 아닌 스탠드를 보고도 당부하고 싶네요.

서 : 팬과 적극적으로 호흡하길 바랍니다. 야구장에서 선수는 그저 운동하고, 팬들은 지켜보는 식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돼야죠.

강 : 팬들이 선수에게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에 걸맞은 행동을 요합니다. 또 프로야구 팬들도 ‘프로’입니다. 스스로 격을 떨어트리는 행동은 삼가야죠.

장 : 지방 연고팀들의 응원도구가 내년에는 수도권 구장에 가득 차길 기대합니다.